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ing of the Economic Value of a Public Library

표 순 희(Soon-Hee Pyo)*

목 차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범위
1.3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가치
2.2 가치 측정의 방법
3. 연구 설계
3.1 기관 및 표본
3.2 조사 방법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연구 결과
4.2 분석 및 가치 측정
5. 결 론

초 록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방법을 소비자 잉여와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해 공공도서관이 개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84%의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 사람이 도서관 이용을 위해 월 8,270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을 보였다 .도서 대출을 위해서는 1권에 1,470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추정된 전체 도서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1/3 배 도서 대출에 대한 개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3배로 분석되어 측정 대상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ABSTRACT

Variety methods are applied to estimating the value of a public library. This study explored the methods valuing of a public library focused on the consumer surplus and contingent valuation and measured the direct economic value of a public library by using these methods. 84% of the respondents are perceived that public library impact their life. And the users indicated that they are willing to pay 8,720 won per month to use a public library and 1,470 won to borrow a book from the library. Given reasonable assumptions about the cost of service, users place a value on the use of a public library is 1/3 times, the borrowing a book from the library is 3 times.

키워드: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 소비자 잉여, 조건부 가치측정
Public Library, Economic Value, Estimating Methods, Consumer Surplus, Contingent Valu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shpyo88@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6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6월 15일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도서관은 정보기술 및 대중 매체의 발달, 여가 생활의 증대와 같은 주민 생활의 변화를 수용하는 평생교육, 문화 및 오락의 장이다. 또한 지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재생산하는 민주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그 수행이 지역 사회 및 주민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야 한다.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공공 혜택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얻는 혜택을 확인하고 평가하기를 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들은 공공 예산 확보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들의 가치를 가시화하고 문서화해서 그 존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공공도서관 가치를 평가하고 가시화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 방법론, 척도 등의 부재로 어려운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Holt, Elliot, Dussold(1996) 등은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인 틀과 방법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수행된 Saint Louis 공공도서관의 비용혜택 분석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방법에 있어 공공도서관의 혜택 측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NISO(the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1] 과 IMLS(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2] 의 주최로 열린 회의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측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의 기반들이 조성되었는데 최근에는 도서관 혜택 측정을 위한 연구가 국가 차원(Aabø 2005; Pung 2004)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공도서관의 연구는 아직도 서비스, 이용, 기능, 정책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며 혜택, 가치 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행 결과와 관련된 평가 또한 성과 및 효과성 평가(홍현진 1999; 홍현진, 이용남 2001) 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미경(2004)의 영향력 평가 지표가 공공도서관 혜택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 수행되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공공도서관 가치의 범주를 살펴보고 이를 가시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가치의 측정은 앞서 소개한

1) 'Issues for libraries: measuring the information age'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서관 평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중점 논의하였다

2) IMLS는 1993년 제정된 정부수행결과법안(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모든 정부기관의 수행목표, 영향, 혜택분석을 요구한다.

방법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이하 CS)와 조건부 가치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통해 수행하였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이용가치 측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용가치 중에서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가치 측정을 그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혜택의 첫 수혜자는 개인이며 개인적 혜택의 합이 사회적 혜택을 이룬다고 보았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직접 가치가 가장 의미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가치의 측정은 수량화가 용이하며 이 데이터가 공공도서관 기금의 확보와 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간접 가치의 측정은 개인의 경제적 혜택과 도서관 서비스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배제하였다.

측정 방법은 CS와 CVM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CS는 잉여 가치를 의미하는 측정의 대상으로, CVM은 이러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가치를 논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들을 같이 분석하였다. 수행된 가치 측정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험적인 시도로 도서관의 대표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다면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복잡한 작업으로 한 두 측면만을 단일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계들은 이후 관련된 추후 연구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응용 연구로 많은 부분이 새롭게 정립되기 기대한다.

1.3 연구 방법

측정 대상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측정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 졌고 특히 측정 방법은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가치의 측정은 해당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CS가치를 CVM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가치 측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도서관 이용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연평균 금액을 산정하였다. 둘째, 이렇게 파악된1 인당 지불금액을 토대로 해당 도서관의 전체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였고 이를 도서관 전체 예산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가치를 산출해 보았다. 셋째, 도서관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도서관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도서 대출에 대한 대체 지불의사 금액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의 년간 예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가 표시한 금액과 도서관에 지출된 금액과의 비율을 통해 가치를 가늠해 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가치

'가치'는 값 혹은 값어치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많은 학자들은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영향력(impact)', '결과(outcome)', '혜택(benefit)', '가치(value)'를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Matthews 2004). Abend와 McClure(1999)도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태를 바꾸는 어떠한 행위의 효과로 정의하면서 혜택과 영향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치를 결과, 영향력, 혜택의 개념을 모두 통합하는 최종적인 결과척도로 사용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학자마다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이 간접이냐 혹은 직접적으로 미치느냐에 따라 구별 한다. Holt, Elliott, Moore(1998)는 Saint Louis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에서 혜택을 직접적 혜택과 간접적 혜택이라고 지칭하였다. 직접적 혜택이 도서관의 이용자가 직접 얻는 이득이라면 간접적 혜택은 개인이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오는 전체 사회 혹은 제3자의 혜택이라고 정의 하였다. Fraser(2002)도 도서관의 혜택을 직접적이냐, 간접적인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직접적 혜택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실현되는 서비스의 혜택이고 간접적 혜택은 크게 지역 사회나 비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의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는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서 지역 사회, 기업, 개인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으로부터 발생한다. 혜택은 사회 및 개인의 차원에서 또한 사회, 문화, 교육,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Holt, Elliott, Dussold(1996)는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혜택을 '영향력'이라고 간주하였고 경제적 영향력을 고용, 소비, 수입 재소비의 증대 및 새로운 고객의 유입, 재정적 지원이 유입되는 것과 같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지표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의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Abend, McClure(1999), Fraser, Nelson, McClure(2002)는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영향력을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지표 변화라는 관점이 아닌 개인의 소비, 기업의 정보 획득 등과 같은 금전적 절약, 금전적 이득이라는 개별적 혜택의 관점에서 보았다. 결국, Holt 등과 Abend 등이 주장한 경제적 영향력은 그 대상이 개인이냐 지역 사회냐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다음 〈표 1〉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Matthews(2004)도 경제적 영향력은 개인, 지역의 개별기업, 지역 전반에 걸친 것으로 Fraser 등과 유사하게 보았고 사회, 문화, 교육적 혜택도 〈표 2〉와 같이 개인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으로 나누어 보았다.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용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회가 공공도서관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존재가치,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이용에서 오는 가치,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는 유산가치와 같은 비이용가치 또한 중요하다. 비이용가치에 대해 Aabø(2004)는 도서관의 가치 중 40%는 직접 이용자로부터 나온 이용가치, 20%는 잠재 이용자를 통한 잠재이

〈표 1〉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혜택

혜택의 본질	수혜자		
	개인	지역 기업	지역 사회
직접적	• 개인에게 일어나는 특정한 경제적 혜택 - 자료 구입 대신 빌림으로써 얻는 절약 -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정보 - PC 등 기술적 접근 공간 - 건강, 고용정보	• 기업에게 일어나는 특정한 경제적 혜택 - 고객메일링리스트 확보 등	•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혜택 - 도서관 고용 효과 - 상품, 서비스 구매를 통한 소비창출
간접적	•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반적 혜택 - 증가된 자산가치	• 기업에게 일어나는 일반적 혜택 - 똑똑한 직원	•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혜택 - 삶의 질 향상

〈표 2〉 공공도서관의 사회 · 문화 · 교육적 혜택

개인	지역 사회
여가 시간 이용	사회적 교류
정보화된 개인적 결정 수행	지역 사회 인지도 상승
교양	교양
교육 지원	민주사회 형성
평생 교육	
지역 역사, 족보	

용 가치, 40%가 비이용 가치라고 하였고 도서관의 '이용가치', '비이용가치'를 모두 통합한 '총가치'를 파악해야 한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공공도서관이 미치는 가치는 〈그림 1〉과 같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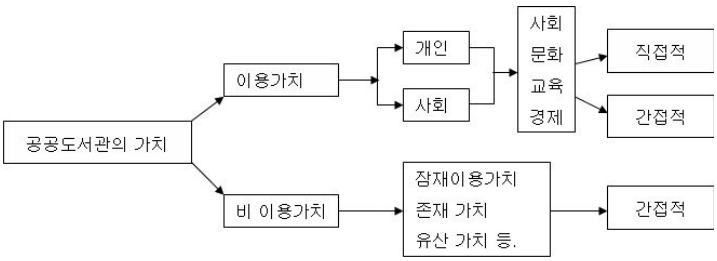
2.2 가치 측정의 방법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혜택과 같은 결과의 측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비용혜택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다. 공공 정책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비용혜택분석은 서비스 혹은 상품의 가치를 그 가격과 비교해서 금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활동 혹은 서비스에 드는 비용과 그로부터 나오는 혜택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혜택을 나타내는 단위가 달러나 원화와 같은 수치나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수량화 하는데 용이하다. Lancaster(1993)는 이러한 비용혜택분석은 혜택이 비용을 능가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였다.

비용혜택분석은 기관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최근 도서관에서는 CS, CVM, 투자수익(return on investment, ROI) 분석[3], 시간대비용(cost-of-time)[4] 접근

3) 예산 투입 대 수행의 효율성을 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 총 이용 건수에 해당 자료들의 소매가격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들의 총합과 투입 예산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4) 도서관 정보 혹 서비스의 가치는 이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가정 아래 분석된다. 측정 항목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소비된 여행 경비, 복사비 등과 같은 정보 획득 비용, 기회비용이 있다.



〈그림 1〉 공공도서관 가치의 범주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혜택분석은 각 방법마다 특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CS와 CVM을 중심으로 측정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소비자 잉여

CS는 소비자가 높은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으려하는 재화를 값싸게 구입 했을 때 얻는 복지 또는 잉여 만족이며 구매자가 실제로 치르는 대가와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대가 사이의 차액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용자가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일정 금액이라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값을 치를 때 그 금액을 CS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CS는 해당 금액 만큼 이용자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복지로 2004년에 British Library(이하 BL)이 측정하고자 했던 기본 개념이다. BL은 이용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CS가 얼마인가를 분석함으로써 BL이 제공하는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였다. 이때 CS는 개인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 이하 WTP), 보상 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 이하 WTA)을 조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CS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가격 즉, 서점에서 도서의 구입 가격, 비디오 구입 가격 혹은 대여 가격 등으로 대체 측정될 수 있다. 먼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시장 상품을 파악하고 서비스, 상품, 가격표를 작성한다. 시장 가격은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의 평균 가격을 조사하게 되는데, Saint Louis 공공도서관에서는 비디오, 도서, 음반과 같은 자료의 가격을 월마트나 해당 지역 서점과 같은 곳에서 제시된 가격을 다음 〈표 3〉과 같이 파악하였다.

각각의 자료에 대한 시장 가격과 이용 건수를 바탕으로 CS를 계산 했을 때, Saint Louis 공공도서관의 경우 1$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의 가치 즉, 10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장 가격만을 이용한 CS 가치 측정은 정책 결정자나 납세자들에게 가치를 가시화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시장 가격만큼 가치를 부여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의 대체품에 대해 '지불해

〈표 3〉 Saint Louis 도서관 자료의 시장가격 메트릭스

서비스	대체물	가격($)	가격 출처
어린이 도서	서점	8.00	Bowker Annual
성인 도서	서점	14.00	Bowker Annual
비디오	대여	4.00	Blockbuster 비디오
오디오/음악	구입	13.00	월마트
잡지	가판대	3.00	지역 신문 가판대
신문	가판대	1.00	지역 신문 가판대
참고 및 연구 서비스	정보 브로커	50.00/ 1시간	정보 브로커
컴퓨터 서비스	지역 커피숍	무료	지역 커피숍
사전	CD 구입	75.00	Encarta

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 노후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을 적용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Matthews 2004).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직접 물어봄으로써 CS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구입가격의 10%에서 25%까지 지불할 의향(Matthews 2004)을 가지거나 도서는 구입 가격의 50%, 비디오 등은 25%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연구 되었다(Sumison, Hawkins and Morris 2002; Morris, Hawkins and Sumsion, 재인용 2001). South Carolina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이용자 지불 금액과 도서관 서비스 이용 통계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측정하였다. 이 금액을 이용한 자료의 이용가치 측정은 다음과 같다(Barron 2005).

- 도서: 5$(2001년 도서 평균 가격 10$의 1/2) ×총 대출 권수
- 비도서: 8.76$(2001년 오디오, 비디오, CD-ROM자료의 평균 금액 35$의 1/4가격) × 총 대출 건수
- 잡지 및 신문: 200$(2002년 평균 잡지 및 신문 연간 구독료) × 총 구독 종 수

이와 같이 해당 서비스나 재화를 대체 할 수 있는 상품에 대비한 가치의 측정으로 주로 직접적 가치, 이용 가치 측정에 유용하며 또한 도서관이 특정 서비스나 자료에 대한 실시와 도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가치 측정으로 입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나.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은 1947년 자원경제학자에 의해 천연자원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6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학자 Davis가 미국 삼림지역의 실외 레크레이션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용이 확산되었다(Mitchell and Carson 1989). 이 방법은 개인이 모든 종류의 환경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선호를 금액 단위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금액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조건부적인 가상 상황 혹은 가상의 시장이 설정 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녹지를 현재의 2배로 늘린다면~', '도서관 예산의 부족으로 어린이실 운영이 중단 된다면~'과 같은

상황이다.

녹지를 두배로 늘리기 위해, 어린이 실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얼마 까지 지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직접 질문하게 되는데 주로 설문지나 인터뷰 형태의 조사가 진행된다. 질문의 유형은 재화나 서비스가 없을 경우 이것을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WTP, 재화나 서비스가 없을 경우 얼마로 보상을 받겠는지를 묻는 WTA가 있다. 일반적으로 WTA 가 WTP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는데 응답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액에 더 많은 금액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WTA가 WTP 보다 타당한 결과를 얻기 힘들고 신뢰도가 더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박성연 1997; Holt, Elliott and Moore 1998).

가격표가 달려 있지 않은 제품을 보고 가격을 알아 맞추기 힘든 것처럼 응답자들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얼마의 금액을 지불 할지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조사의 결과가 설문에 근거해 산출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및 편의가 나타 날 수 있다(김남엽, 유종훈 1999).

CVM을 통한 연구의 설계 시 이러한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응답자들이 가상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면대면 설문조사를 제안하고 있으며, 적절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가격표를 제시하는 지불카드법과 같은 유도기법을 사용한다.[5)]

지불카드법은 응답자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사람들이 연간 국방이나 소방과 같은 공공 재화 및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평균 금액이 적힌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금액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지불카드 금액은 1인당 연간 공공재화를 위해 지불하는 세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池內 淳(2003)의 연구처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공공 문화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응답자의 이해가 용이한 사진, 그림, 차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김동일과 홍종호(2003)과 같이 제시 금액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 의사액의 분포를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 금액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된 표본 집단의 지불의사액 평균 금액은 모집단 수에 의거해 전체 지불 의사액을 추정하게 되며 이 금액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BL에서 2004년에 CVM을 이용해 수행한 경제적 가치 측정에서 직접 이용가치로 조사된 1인당 금액과 이를 전체 BL의 등록된 이용자 113,000명에 기초해 산정한 가치 금액을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British Library 2003).

살펴본 바와 같이 CVM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접 이용가치를 이용자가 그 서비스에 지불할 금액을 토대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특정 서비스 등과 같이 모든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금액이라는 수치로 부여하는 것이

5) 유도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불카드법(payment card), 경매게임법(bidding game), 양분선택법(take-it-leave-it offer), 이중양분선택법(take-it-leave-it offer with follow-up) 등이 있다. 각각의 유도기법에 대해서는 김남엽(1999), 박성연(1997) 등의 논문을 보시오.

〈표 4〉 BL 이용자 1명 및 전체 WTP, WTA 가치 평가 금액

	평균		학술 이용자		사업 관련 이용자		일반인	
WTP	1인(₤/년)	전체 (100만₤/ 년)	1인	전체	1인	전체	1인	전체
	116	13.1	102	6.2	152	5.1	96	1.7
WTA	273	30.8	237	14.5	397	13.3	165	3.0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해당 도서관의 간접적 가치나 이미지, 인식도와 같은 비이용가치 측정에도 유용하다.

3. 연구 설계

3.1 조사 기관 및 표본

공공도서관 영향력의 범위가 해당 지역 사회라고 보았을 때 서울 및 그 이하 행정 단위의 경제적 가치 측정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에 용이하다. 이에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정확한 가치 측정을 위해 도서관 고유의 서비스가 잘 수행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하였다. '서울특별시립 공공도서관보' 2005년 현황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수영, 취미 강좌, 영화 상영과 같은 문화센터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선정된 A도서관은 서울시 향토 및 족보 자료서비스와 같이 지역 사회와 밀접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며 다양한 순회문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 고유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작업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VM의 대상은 실제로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혜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응답자는 A도서관을 이용하는 내부 이용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지불가능 금액을 묻는 조사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로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하였다.

3.2 조사 방법

CVM에서 사용하는 두개의 질문 유형 WTA와 WTP는 그 결과가 Saint Louis 공공도서관의 경우처럼 2배에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CVM의 실질적 확산에 기여를 한 미국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조사 설계의 해석과 분석이 애매할 때에는 WTA보다 WTP가 더 신뢰도가 높아 WTP의 사용을 권고 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WTP를 질문하였다.

조사 방식은 이용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즉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질문의 전제가 도서관이 없을 경우, 서비스가 없을 경우와 같은 가상 시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가치 금액 선정을

위해 면대면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108부를 배포하여 즉시 답을 받은 후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나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원할 경우 답변을 하면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3월 마지막 주, 1주일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해당 도서관의 모든 자료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비율의 부수를 주중과 주말, 오전과 오후에 배포하여 다양한 시간대의 이용자 의견을 수집 하였다.

3.3 설문지 및 지불카드작성

설문지는 BL이나 Florida 공공도서관, 일본의 쓰기나미 중앙도서관과 같이 CVM이 응용된 연구의 설문 내용을 참고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내용, 도서관의 이용 빈도, 도서관이 지역 및 개인에게 주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도서관에 대한 WTP에 대한 질문 총 4개 항목의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WTP에 대한 질문은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가 유료라고 가정하고 한 달 평균 도서관 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질문하였다. 또한 도서 한권 대출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기술토록 하였다. 이는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일 수 있는 대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부여한 가치 즉, CS를 분석함으로써 전체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신뢰성 판단과 함께 유의미한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불카드는 응답자가 지불할 가격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접질문을 통해 금액을 답해야 하는 것보다 응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금액에 따라 응답자의 지불액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 기준금액을 무엇으로 할 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지출하는 가계지출금액을 지불카드에 제시되는 참고 금액으로 정하였다. 사용된 정보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로 2005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재화뿐만 아니라 채소/해조류, 빵류/과자류와 같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지출액을 다음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지출항목은 '신문도서', '교재비'와 같이 도서와 관련하여 응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도서 한권을 대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로 할 금액은 평균 도서 1권당 구입 가격과 대여 가격을 조사하였다. 도서 1권당 구입 가격은 '대한출판화협회'의 '분야별 출판 시장 규모 2005'에서 제공하는 분

〈표 5〉 지불카드(1):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지출 항목	지출 금액	지출 항목	지출 금액
낙농품	22,300 원	신발	14,200 원
과실류	34,700 원	의약품	27,100 원
수도료	15,900 원	대중교통비	74,500 원
전기료	39,600 원	통신비	143,200 원
문방구	4,300 원	차, 음료, 주류	21,300 원

야별 단행본 가격의 평균을 제공하였고[6] 대여 가격은 서울 시내에 지점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도서 대여점 3군데의 가격을 조사하여〈표 6〉과 같이 제공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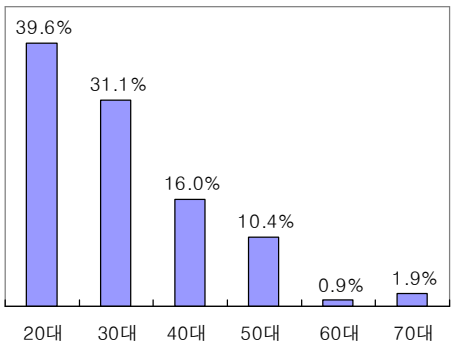
분석 대상이 된 설문지는 배포된 총 108부 중에서 4문항 이상이 답변이 안 된 2부를 제외한 106부이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65.1%, 여자가 34.9%로 남자 응답자가 2배에 가깝게 조사되었다. 연령은 20대가 약 40% 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를 보여주었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8.4%, 대학 졸업이 59.4%, 전문대 졸업이 13.1%, 고등학교 졸업이 18.7% 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7.4%, 학생이 21.7%, 무직이 20.8%, 자영업자가 18.9%이며 주부는 2.8%,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기타 응답자가 8.5%에 달했다. 1주일의 조사 기간 동안 여자 응답자의 비율이 남자에 비해 반이하였으며, 주부의 응답이 2.8%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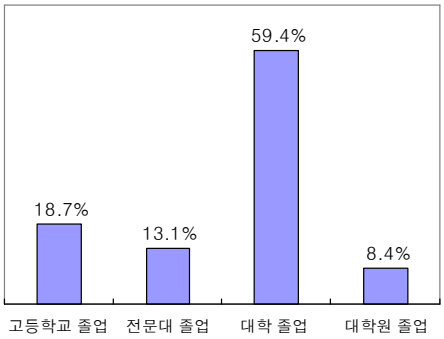
조사된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약 3회 정도로 나타났고 한 번 방문 시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평균 2시간 20분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간은 일본의 공공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가 한 번 방문시 머무는 시간이 45분이라는 조사결과(박인규 2003) 보다 많은 시간을

〈표 6〉 지불카드(2): 도서의 시장 가격

도서 1권 평균 판매 가격	15,000 원
문학, 소설류 도서 1권 평균 판매가격	9,500 원
어린이 도서 1권 평균 판매 가격	9,000 원
문학, 소설류 도서 1권 대여가격	5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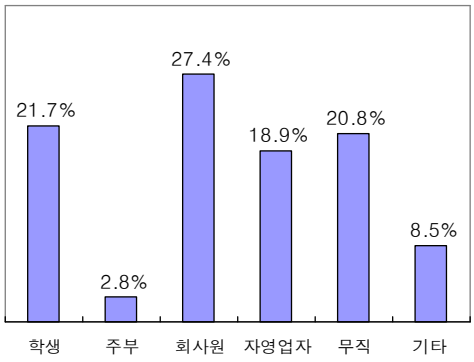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연령



〈그림 3〉 응답자의 학력

6) 분야별 단행본 평균가격에서 '학습지', '만화' 가격은 본 연구 대상 자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림 4〉 응답자의 직업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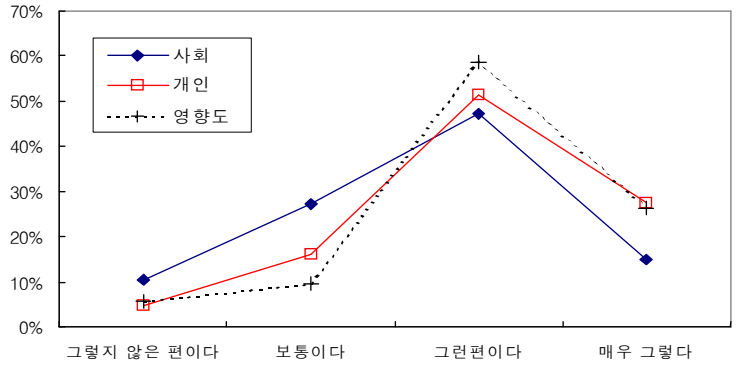
다음으로 질문한 항목들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사회, 개인에게 경제적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다. 응답자의 47%가 A 도서관은 지역 사회에 경제적 기여를 '하는 편이다'라고 답하였고 15%는 '매우 그렇다'라는 답을 하였다. 그렇지 않다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38%로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51%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하였고' 매우 그렇다'라는 답은 27%에 달해 개인이 느끼는 경제적 이득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이득에 비해 2배에 가깝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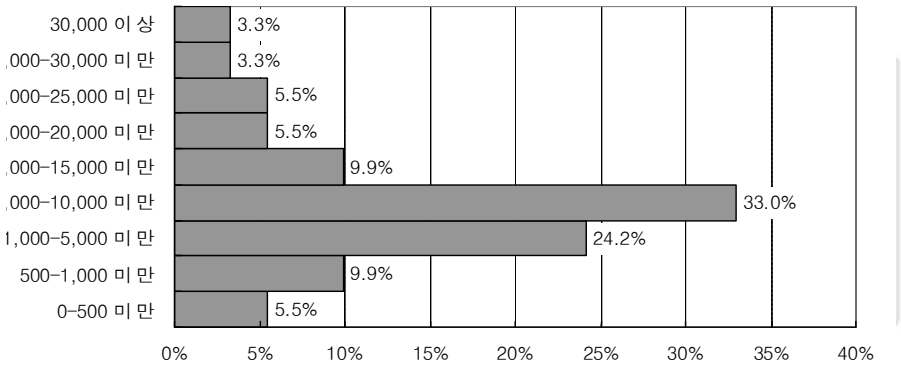
A도서관이 없을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8%가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을 하였고 26%가'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답을 하여 매우 경제적으로 기여한다고 답한 27%와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개인이 인식하는 지역 및 개인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와 영향이 미치는 정도이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 도서관의 이용 여부에 대한 답변은 약 57%가 '이용할 것이다'로 답을 하였고 31%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나머지 12%를 보면 대부분 이용 요금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든지, 이용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액이라면 이용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다음 질문인 월평균 지불 의사액에 대한 응답을 한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 또한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즉, 69%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도서관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다음 질문은 도서관 이용에 금액을 지불한다는 가상의 상황에서 월평균 도서관 이용을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이다. 총 응답 수 106명 중에서 15명만이 지불 금액을 응답하지 않았다. 총 91명의 응답자 중에서 33%가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 할 의사를 보였고 다음은 24%가 1000원에서 5000원 미만의 금액에 표시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5〉 도서관의 경제적 기여 및 개인에 대한 영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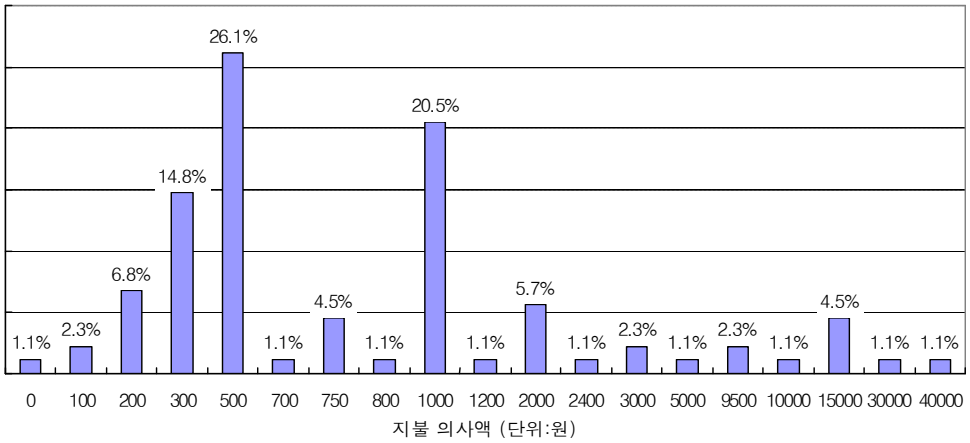
〈그림 6〉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지불 의사액

조사 결과 20000원 이상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12% 이상이 되며 일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약 8,270원으로 나타났다.

도서 1권당 대출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나타났다 500 원을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았으며 1000원이 20.5%, 300원이 14.8%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금액은 500원이며 평균값은 2,530원이다. 책 한권 당 지불 금액이 500원인 것은 지불카드(II)에서 제시된 도서대여 금액이 500 원으로 설정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도서 한 권 당 지불 금액을 30,000원이나 40,000원으로 답한 것을 평균 계산에 있어 이상치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계산을 할 경우 평균 금액은 1,470원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1,470 원을 평균 지불 의사액으로 선택하였다.

4.2 분석 및 가치측정

위와 같이 조사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도서 대출에 대한 지불 의사액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은 도서관이 지역 사회(62.3%) 및 개인(79%)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사회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이 없을 경우 84% 가량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 표시를 꺼려하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에 금액을 지불하는 상황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의 반 이상이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지출할 일정액의 금액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가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나온 답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월평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8,27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불카드 제시 금액과 비교해 보면 '문방구류' 4,300 원보다는 높은 금액이나 나머지 다른 금액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이다. 연간 99,240원 이라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출 금액이 나온다.

넷째, 도서 대출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액은 1,47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소설, 문학류 대여가격인 5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이나 평균 판매 가격 9,500원, 비소설류 평균 판매 가격인 15,000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금액은 Sumison 등(2002)과 Morris 등(재인용 2001)이 조사한 단행본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불 의사액이 평균 가격에 1/2에서 1/4에 달한다는 결과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또한 지불 의사액의 최빈값은 500원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낮은 지불 의사액은 설문에 제시된 참고 금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부여하는 금전적인 가치를 SPSS 12.0의 T검증 및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별로 공공도서관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개인에게 기여하는 정도, 개인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용에 부여하는 금전적인 가치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용빈도에 따라 개인의 영향력 정도가 상관계수 0.23, 유의확률 0.017로 약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 집단의 크기를 인구 통계학적으로 유사하게 조정을 한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해당 도서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불 의사액과 도서 대출이라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액이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인 A도서관의 2005년 예산, 2005년 도서 대출건수는 '서울특별시립공공도서관보'를 통해서, 이용자는 담당자를 통해 직접 파악하였다. 두 가지의 지불 의사액으로 일정 연도에 대한 도서관의 가치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조사된 1인당 1년간 도서관 이용 지불 의사액은 99,240원, A도서관 전체 이용자는 13,950 명, 2005년도 A도서관 전체 예산은 3,600,807,000원이다. 여기서 A도서관의 전체 이용자는 A도서관의 도서 대출증이 있고 2005년 대출 기록이 한번 이상 있는 실질적인 이용자로 한정하였다. 이미 조사된 이용자들은 대출증 소지자로 한정하지 않았으나 대출증을 소지하고 자료실을 이용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또한 위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해당 연도의 A도서관 총 이용자가 1년 동안 도서관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과 1년 동안 A도서관이 도서관 운영 및 자료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과 비교 해 보면 0.38이다. 즉, 예산을 1로 하였을 경우 가치는 0.38로 이는 전체 도서관 예산의 1/3의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A도서관 이용에 대한 1인의 1년간 지불 의사액) × A도서관 전체 이용자] ÷ 해당 연도의 도서관 전체 예산

[99,240 × 13,950] ÷ 3,600,807,000 = 0.38

다음으로 도서 대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액을 통한 측정은 다음과 같다.

[(A도서관 이용자 1명의 대출에 대한 지불 의사액) × 해당 연도 A도서관 도서 대출권수] ÷ 해당 연도 도서 구입비

[1,470 × 265,544] ÷ 127,814,000 = 3.05

이 결과로 보면 A도서관의 대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부여한 금전적 가치는 도서구입 예산을 1로 하였을 경우 가치는 3.05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도서 대출 서비스에 예산을 1로 하였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치 즉, 3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부여하였다.

[(해당 연도 도서 1권당 평균 가격) × 해당 연도 A도서관 도서 대출권수] ÷ 해당 연도 도서 구입비

[14,260 × 265,544] ÷ 127,814,000 = 29.6

마지막은 해당 연도에 대출된 도서를 그대로 이용자가 시장 가격으로 구입한다고 가정한다

면 도서관 예산 1에 대하여 약 30배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해 보면 도서관 전체에 부여한 가치는 0.38, 도서 대출 서비스에 부여한 가치는 3.05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에 부여한 가치와 도서 대출이라는 하나의 서비스에 부여한 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도서관의 가치를 각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합으로 분석한다면 이 격차는 Saint Louis 공공도서관 전체의 WTP가 1$, WTA가 5$, 각 서비스별 CS금액은 10$로 조사 된 것에서도 보듯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방법에 따른 상이한 결과는 Saint Louis 공공도서관이나 BL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도서관의 가치 측정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복잡한 작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이를 사용해야 하며 각각의 결과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많은 도서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치 측정은 방법론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측정에 사용하는 통계 수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다양한 자관의 상황이나 측정 환경에 맞게 지불 의사액 혹은 평균 판매 금액, 전체 등록 이용자 혹은 실제 대출 이용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지불 의사액, 해당 년도의 실제 도서 대출 이용자 수와 같이 가급적 엄격하고 실질적인 수치를 이용하였다.

5. 결 론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CS나 CVM과 같은 방법론은 아직까지 확립된 이론이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도서관들이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가시화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던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를 적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를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적 연구이다. 분석된 방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서관의 가치가 측정될 수 있는지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예를 제시하였는데 이후 공공도서관의 총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CS 분석이 요구된다. 앞서 측정된 A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서 도서관 전체 대한 WTP와 도서 대출이라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WTP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도서 자료의 대출, 참고 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WTP의 분석 결과와 통합 하였을 경우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WTP와 개별 서비스에 대한 WTP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이용자 조사를 통한 간접 가치 측정이 요구된다. 비이용자의 간접가치 존재가 애매하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지불액을 묻는 것이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Lancaster가 언급한 혜택의 여섯 단계를 보면 도서관의 '존재(existence)'와 존재에 대한 '주지(awareness)'

가 도서관 서비스 영향력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BL에서 수행한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바로 BL의 '존재'와 '주지'에 대한 가치 측정이다.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에 있어서도 적절하고 정교한 방법을 통한 비이용자들의 가치 평가가 수행되어 개인에서 지역 사회로의 폭넓은 도서관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 집단의 세분화를 통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대학, 전문, 학교 도서관 이용자와는 달리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주부에서 직장인 등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주부 및 학부형, 구직자, 기업가 등 각각 다른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이 다르듯이 이에 대한 구별된 가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해당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핵심 이용자 집단 및 비이용자 집단과의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질적 결과물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영향력에 대한 금전적이고 양적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해 주는 설득력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용혜택분석에 있어 CS 및 CVM은 그 응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히 CVM은 직접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에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금액으로 환산시킴으로써 이용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비이용자의 잠재적 가치 평가도 가시화 시킬 수 있다.

CS 및 CVM을 이용한 가치 측정의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다른 개별 비스를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Virginia Commonwealth 대학에서 수행된 참고서비스(Harless and Allen 1999),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에서 수행된 종합목록 평가(McDermott Miller Ltd. 2002)에서 보듯이 각 도서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서비스에 적용 시킬 수 있다.

둘째, 특정 이용자 집단별 적용이 가능하다. 주부, 구직자, 기업가, 교육자 등 다양한 이용자별 가치 측정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강약을 파악, 이를 정책에 활용가능하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소외 계층 이용자들의 가치평가에 적용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셋째, 다른 종류, 다른 환경에 있는 대학,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에 적용가능하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내의 도서관의 경우 그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CVM을 통한 연구에 있어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의 신뢰성이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산출은 응답자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정확한 이해,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근거 있는 금액 산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공공도서관만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즉, CS 및 CVM의 이론과 방법론적인 신뢰성 확보는 다양한 도서관 환경에서 반복적인 수행을 통한 검증 작업으로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남엽, 유종훈 1999.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주요 편의와 논쟁.『産經硏究』, 7: 195-207.

김동일, 홍종호 2003. 휴대폰 전자파 피해의 경제적 비용: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응용.『計量經濟學報』, 14(2): 71-93.

대한출판문화협회. 2005. 2005년 분야별 출판 시장 규모(추정액). [online]. [cited 2006.4.16].
〈http://www.kpa21.or.kr/dataroom_2_read.php?num=39&page=1&mode=&text=&sel=〉

박성연. 1997. CVM을 이용한 효과적 사회마케팅에 관한 연구.『經營論叢』, 15: 61-101.

박인규. 2003. 공공도서관의 이용행동에 관한 연구.『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 19(1): 77-84.

정독도서관. 서울特別市立公共圖書館. 2005.『圖書館報』, 제20집.

차미경. 2003. 공공도서관의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311-328.

통계청. 2005. 도시가계연보. [online] [cited 2006.4.22].
〈http://kosis.nso.go.kr/cgi-bin/SWS_1120.cgi?REPORTID=H&CONTENTSME==0&HNA 도시가계연보&A_LANG=1〉

홍현진. 1999. 공공도서관의 성과측정에 관한 고찰.『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7집.

홍현진, 이용남. 200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과성 차원에 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5-25.

池內 淳. 2003. 仮想評價法による公共圖書館の經濟評價. 日本圖書館情報學會誌, 49(3): 89-107.

Aabø, Svanhild, and Jon Strand. 2004. "Public library valuation, nonuse values, and altruistic motiva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3): 351-372.

Aabø, Svanhild. 2005. "Valuing the benefits of public libraries."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7: 175-198.

Abend, Jennifer and Charles R. McClure. 1999. "Recent views on identifying impacts from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17(3): 3-29.

Barron, Daniel D, Robert V. Williams, Stephen Bajjaly, Jennifer Arns, and Steven Wilson. 2005. *The Economic Impact of Public Libraries on South Carolina.* Th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cienc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British Library. 2003. *British Library Economic Impact Assessment: Final Report.*(BL 내부문서).

Fraser, Bruce T., Timothy W. Nelson, and Charles R. McClure, 2002. "Describing the economic impacts and benefits of

Florida public libraries: findings and methodological applications for future work."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4: 211-233.

Harless, D. W., and F. R. Allen. 1999.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patron benefits of reference desk service in an academic library."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0(1): 56-69.

Holt, Glen E., Donald Elliott, and Christopher Dussold. 1996.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 investment in urban libraries." *The Bottom Line*, 9(4): 4-13.

Holt, Glen E., Donald Elliott, and Amonia Moore. 1998. "Placing a value on public library services." [Online]. [cited on 2006.4.4]. 〈http://www.slpl.lib.mo.us/libsrc/restoc.htm〉.

Lancaster, F. W. 1993. *If You Want to Evaluate Your Library...*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Matthews, Joseph R. 2004. *Measuring for Results: The Dimensions of Public Library Effectiveness*.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Inc.

McDermott Miller Ltd. 2002. *Research Report: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and National Union Catalogue Economic Valuation*. [Online]. [cited 2006.5.4]. 〈http://www.natlib.govt.nz/files/EconomicValuationReport.pdf〉.

Mitchell, Robert Cameron, and Richard T. Carson. 1989.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s for the Future.

Morris, Anne, Margaret Hawkins, and John Sumsion. 2001. *The Economic Value of Public Libraries*. London: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Quoted in Daniel D. Barron, Robert V. Williams, Stephen Bajjaly, Jennifer Arns, and Steven Wilson. 2005. *The Economic Impact of Public Libraries on South Carolina*. Th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cienc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ung, Caroline, Ann Clarke, and Laurie Patten. 2004.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British Library."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0(1): 79-102.

Sumsion, John, Margaret Hawkins, and Anne Morris. 2002. "The economic value of book borrowing from public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58(60): 662-682.